



李大云 · 兪義卿 교수부부

<연세대 이과대 화학과>

<세종대 자연과학대 화학과>

부부가 국내서 박사학위 ... “토종 화학자”

연세대 이대운교수와 세종대 유의경교수는 모두 국내서 박사학위를 받은 '토종 화학자 부부'이다. 64년 연세대를 함께 졸업한 이·유교수부부는 같은 목사집안으로 인연을 맺어 '선 우리현실 파악, 후 해외기술 체득'이라는 이교수의 고집에 따라 순수하게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한 것이다. 내년 대한화학회 회장직을 맡게될 이교수와 식의약품 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부인 유교수를 만나보았다.

서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은 이교수의 '선 우리의 현실 파악, 후 해외기술 체득'이라는 당시로서는 다소 무모해 보이던 고집에서 비롯됐다. 두 사람은 63년에 이교수가 군을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한 후 같은 과에서 공부하며, 두 집안 모두 목사집안이라는 비슷한 가정환경과 삶의 철학이 같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결혼을 약속한 것은 졸업 후 이교수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유교수는 미국 유학을 결정하여 한국의 대학원 생활을 잠시나마 경험을 하고자 이교수의 연구실로 온 때부터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기를 고집하던 이교수와 이미 유학을 결심한 유교수는

李大云교수(연세대 화학과 교수, 58세)와 兪義卿교수(세종대 화학과 교수, 56세)부부는 우리 화학계에서 보기 드물게 '토종 화학자'라 할 수 있는 부부학자이다. 두 사람은 외국학위를 선호하던 60년대 당시의 풍토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기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

득했다.

'내실있는 국내외 학술활동' 평가

분석화학이 전공인 이교수는 연세대에서, 유기화학이 전공인 유교수는 경희대에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두 사람 모두 그간 누구보다도 내실있는 국내외 학술활동을 해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들 부부가 국내에

아름다워야 할 연애기간을 논쟁과 갈등으로 보내고 끝내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기로 정하여 이교수는 한국에서, 유교수는 미국(Smith College)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다.

편지만이 유일한 의사 교환 통로였던 이들은 3년간 수백통의 편지를 통해 사랑을 확인했고 결국은 유교수가 귀국하기로 해 국내에서의 연구를 택하게 됐다. 유교수는 평생 쓸 편지를 그때 다 썼기 때문에 지금은 편지쓰기가 싫을 정도라고 당시를 회상한다. 이교수는 지금도 그런 유교수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 여건은 나쁘지만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는 신념과 유교수의 도움으로 순수하게 국내에서 연구한 이교수의 연구논문은 그후 미국화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Anal. Chem.)에 석사학위 논문을 필두로 거의 매년(68~78) 실리게 돼 그의 고집이 옳았음을 보여줬다. 이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처음으로 이학회지에 실리게 됐다.

내년에 대한화학회장 맡아

이교수의 전공은 분석화학분야중 분리-분석이다. 우리가 보통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마치 도시의 공기나 오염된 물처럼 순수한 것은 거의 없고 여러 성분이 섞인 혼합물인데, 이런 혼합물로 이뤄진 시료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 성분이 무엇인지, 혹은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내는 학문 분야이다. 이교수는 최근에는 공해물질로 잘 알려진 다이옥신, 제초제, 항균제, 자동차 매연 중 탄소 입자, 정맥주 사용 영양제, 공업용 소재의 각종 입자 등의 분리-분석에 매달리고 있다. 앞으



▲ '97년 여름 제주도

로 환경문제나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에 계속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이교수는 연구 활동만큼이나 학회 활동, 학내 활동도 활발해 내년부터는 대한화학회 회장을 맡게 된다. 이교수는 화학 및 화학관련 학술활동이 학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화학관련 산업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기화학중 유기합성이 전공인 유교수는 석사 때부터 관심 연구분야였던 식의약품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는 항암제로 알려진 메토티렉세이트(methotrexate, MTX)와 이와 관련된 유도체들과 항균제인 퀴놀론 유도체들의 합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플로로퀴놀론(fluoroquinolone) 항균제 유도체들의 합성은 최근에는 이교수의 관심 연구 대상 물질이기도 해 연구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 자원도 부족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역시 교육, 특히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두 사람은 그간 정부의 기초 과학 지원이 말 뿐이었다며, 이제 나

라마다 두터운 기술보호 장벽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살 길은 기초과학으로의 실질적 선화라고 강조한다. 물론 당장은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선진국들도 모두 이 같은 길을 걸어 왔기에 오늘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IMF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정부에서 연구와 교육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특히 유능한 인재를 외국에 유학시키는 일만큼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 과정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게 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조언한다. 한국에서 공부하면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 향후 연구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나서 박사후연수 등을 외국에 가서 함으로써 연구의 폭을 넓히고 질을 높이는 것도 국가적으로 유익하리라는 것이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들은 비록 그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늘 성경에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생활'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교수는 64년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석사(66년)와 박사(73년)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화학과장, 총무처장, 교수평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아시아분석화학대회 한국대표를 맡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대한화학회장을 맡게 된다. 그간 저서 5권과 1백여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유교수는 64년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미스대에서 석사(67년), 경희대에서 박사(81년) 학위를 취득했다. 하버드 의대 부속 손다이크기념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세종대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①7

송해영<본지 객원기자>